증도·청산도·유치·창평

슬로시티로의 초대

해수·햇볕·해풍이 빚어낸 '눈부신 눈꽃밭'

해질 무렵 국내 최대의 단일 염전인 태평 염전에서 채염(결정지에서 채취한 소금)한 소금을 염부들이 일륜차를 이용해 소금창고로 운반하고 있다.

⓬ 신안 증도 태평 염전

462만㎡ 소금밭…3㎞ 걸친 소금 창고

24단계 거쳐 '슬로푸드' 천일염 생산

백설같은 새하얀 소금을 머금은 염전이 동쪽과 서쪽을 가로질러 끝없이 펼쳐져 있다.

단일 염전으로는 국내 최대인 신안군 증도 태평 염전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 2배에 이르는 462만㎡ 규모의 태평 염전은 67개의 소금밭과 이에 딸린 67동의 소금창고가 3㎞에 걸쳐 길게 늘어서 있다.

광활한 염전 위로 한여름 뙤약볕은 가차없이 내리꽂히고, 맑은 물에 새하얀 소금이 살짝 모습을 드러낸다. 소금 판 위로 하얀 눈꽃 같은 소금 결정체들이 여기저기서 피어났다.

푹푹 찌는 지열(地熱)은 막 결정된 소금을 금방이라도 녹여버릴 것 같다.

바다 쪽에서는 시원한 해풍이 간간이 불어온다. 하지만, 이미 뜨거워진 지열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인지 소금을 한 곳으로 긁어 모으는 염부의 대파(끌개)질이 바빠진다.

염부들의 굵은 목줄기에 땀방울은 연방 흘러내리고, 팔뚝의 힘줄은 더욱 큰 윤곽을 드러내 보인다. 이른 새벽부터 해질 무렵까지의 쉼없는 염부의 대파 질에 군데군데 모인 소금은 거대한 소금 언덕을 이룬다.

이 같은 소금장인들의 열정과 땀, 청정한 바닷물, 좋은 햇볕과 바람이 태평 염전의 건강하고 맛깔 나는 소금을 빚어내고 있다.

또한, 세계 5개 갯벌 중 하나인 우수한 갯벌과, 청정해역 등 천혜의 자연조건까지 갖춘 탓에 태평 염전의 소금 빛깔은 더욱 빛을 발한다.

실제 증도 바닷물의 미네랄 성분 분석결과 8천680ppm으로, 강원 속초 376ppm에 비해 무려 23배에 달할 정도의 청정 영양수로 밝혀졌고, 갯벌 또한 국내에서 생태적으로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평 염전 2대 소금장인인 이재호(45)씨는 "맑은 물에 먼지 같은 소금 결정체가 뜨면서 커지는 모습을 볼 때면 지금도 그 신기함에 무아지경에 빠진다"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녹여 음식의 맛을 내는 한 알의 소금을 만들어 내는 것에 아주 큰 자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곳 염전에서는 매년 1만5천t의 천일염이 생산된다. 국내 생산량의 5%를 차지한다.

태평 염전의 천일염은 수로를 통해 받아들인 해수를 저수지에서 마지막 결정지까지 23~25일간 최고 24단계를 거쳐 생산된다.

천일염을 만들기 위해서는 깨끗한 바닷물을 끌어들여 저수지에 저장했다가 수로를 통해 증발지로 보낸다. 증발지에서는 해수를 통상 1주일 정도 증발시켜 소금물을 만든다. 그리고 소금물을 결정지에서 분리해 내는 작업 등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는 많은 소금장인들의 땀과 열정, 노력도 들어간다. 그래서 신안 증도 천일염은 대표적인 슬로푸드(Slow Food)로 손꼽히고 있다.

태평 염전 조재우 본부장은 "친환경적 청정해수와 햇볕, 바람 등 순수자연을 이용한 고품질의 자연 소금을 생산해 내고 있다"면서"좋은 소금을 얻기 위해서는 물의 도수와 물의 양의 비율이 적당히 조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태평 염전의 천일염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갯벌 해수로 만들어진다"면서 "지난 45년 동안 광물로 분류됐던 소금이 관련법 개정으로 식품으로 인정받은 만큼 새로운 소금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슬로시티(Slow City)란

고유한 자연환경과 생활방식, 전통음식을 보전하고 이를 토대로 '삶의 질'을 높여가는 마을. 한국에선 신안군 증도와 완도군 청산도, 장흥군 유치·장평, 담양군의 창평이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개 국가에서 101개 도시가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있다.

■ 여행노트 신안 증도

살아 숨쉬는 갯벌 끝모를 은빛 모래밭 여기가 바로 '보물섬'

'보물섬 증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만난 문구다. 지난 1976년 증도 앞바다에서 중국 무역선이 발굴됐다. 깊은 바다 속에서 700여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동전 도자기 각종 공예품 등 2만3천502점의 보물이 나왔다. 그런 이유로 증도는 '보물섬'으로 불린다. 그러나 증도에는 해저 유물 말고도 또 다른 보물들이 많다. 그 보물들 구경하고 즐기다 보면 하루가 금방이다.

섬에서 곧장 만나는 보물 하나가 넓은 염전이다. 국내 최대를 자랑하는 140만 평 규모의 태평염전이 그것. 뜨거운 여름은 소금 생산이 가장 많을 때, 염전 증발지마다 갯물이 그득 담겨져 있다. 소금창고 바로 앞 증발지에는 소금이 보인다. 물표면 위에 네모난 알갱이들이 하얗게 맺히고 있다. '소금이 온다'는 말을 알겠다. 햇빛과 바람 그리고 사람의 노력이 한데 모여 이뤄지는 '하늘농사', 천일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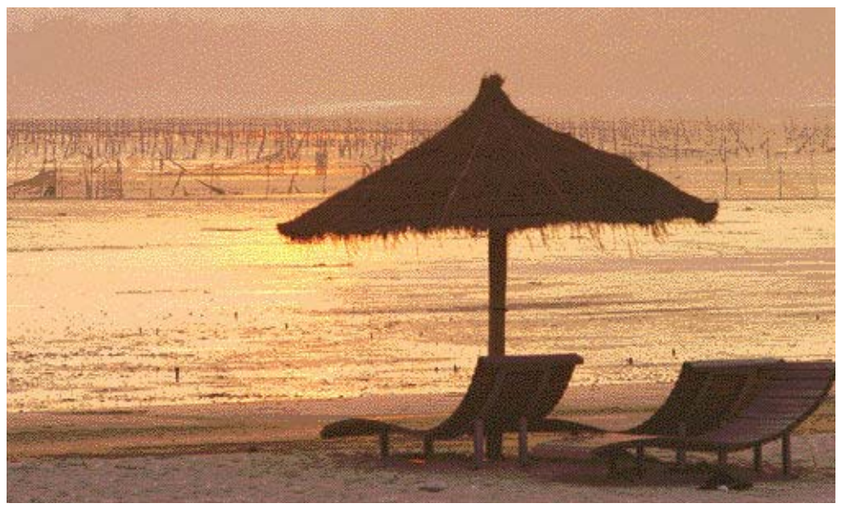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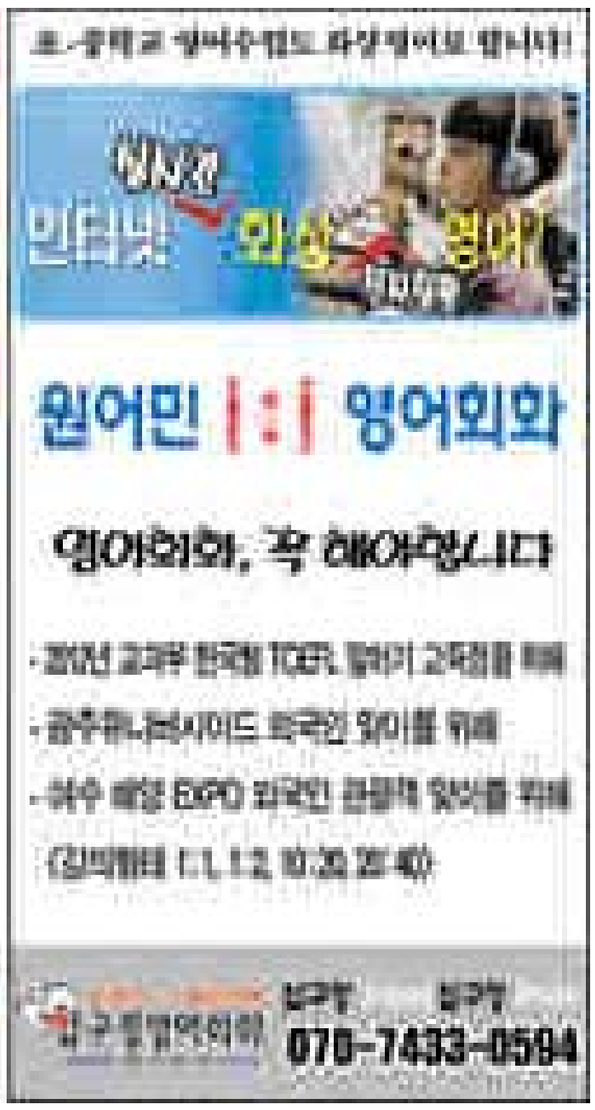
작은 박물관이 있다. 소금창고를 그대로 활용해 만든 소금박물관이다. 밖에서 보기에는 신통치(?) 않았는데 들어가 보니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멋진 박물관이다. 김홍도와 소금장수, 세계의 염전, 석유와 소금 등 소금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가 많다. 또한, 소금에 관한 역사와 생명에 끼치는 영향 등은 소금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소금으로 만든 상어와 짱뚱어, 게 그리고 작은 소금밭을 스크린 삼아 펼쳐지는 영상들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다.

증도에 와서 하고 싶었던 한 가지는 '자전거 타기'. 증도의 또 다른 보물이다. 면사무소를 찾아 노란 자전거를 빌린다. 비용이 공짜다. 어디로 갈까, 망설이다가 무작정 바닷가 쪽으로 달린다. '씽씽',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달려든다. 바로 옆에는 파도 철렁철렁 거리는 바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 연분홍색으로 핀 해당화도 좋고 멀리 두둥실 떠 있는 섬도 좋다. 오랜만에 만끽해보는 여유다. 온 식구가 자전거를 타는 가족이 있는데 '출발' 하고 경주를 한다. 가족들 밝은 웃음소리가 조용한 섬을 떠들썩하게 만든다.

도착한 곳이 '짱뚱어 다리'다. 나무로 만들어진 운치 있는 다리가 넓은 갯벌 위로 나있다. '짱뚱어 다리'라는 이름이 딱 어울린다. 다리 위에서 갯벌을 내려다보면 짱뚱어들이 부잡스럽게(?) 논다. 갯벌에 난 수많은 구멍들과 그 구멍 속들 들락거리는 칠게 농게들. 짱뚱어 다리는 바다 한가운데를 거니는 즐거움과 함께 온갖 바다생물을 바로 눈앞에서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생태체험장이다.

짱뚱어 다리 건너면 긴 모래 해변이 말끔하게 펼쳐진다. 정말 길다. 반대편 끝까지 걸어갔다가 온다면 날 저물고도 남겠다. 울창한 곰솔숲과 나란히, 곱게 휘어진 모래밭은 보고 있는 것만으로 시원하고 여름을 만끽하기에 그만이라는 생각뿐.

고운 모래밭에는 짚을 얹어 만든 파라솔이 줄줄이 서있고 파라솔 아래엔 누워 쉴 수 있는 비치베드가 놓여 있다. 파라솔 아래서 꿈같은 휴식을 취하다가 초록빛 바다와 흰 파도의 유혹을 못이겨 바다로 달려든다. /김창헌(자유기고가)



우전 해수욕장의 전경. 노을진 해변가에 놓인 비치파라솔과 비치베드가 가슴을 설레게 한다.